

칭찬은 제3의 생명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넌** 어째서 새 옷을 입으나 헌옷을 입으나 절구통같냐?”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뽕통이네” 부부싸움은 시작됩니다.

마침내 손찌검이 오가면서 급기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자 쪽에서 이혼소장을 낸 것입니다.

난 어쩌다가 한 주일이면 어김없이 20여 쌍의 이런 부부들을 만나야 합니다. 게다가 이혼 현장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부부는 민법 제 840조 3호 “남편의 심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나의 배우자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칭찬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칭찬을 들어본 기억도 없고, 칭찬을 해본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하다는 말은 반대로 남을 곧잘 비난한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라질 못했습니다. 칭찬은 받아본 사람이 또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나름대로 분명히 쓸모있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칭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칭찬거리를 애써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에는 저마다 놀

라운 재질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남을 지적하고, 비난을 잘 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는 칭찬은 무조건 매우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진실한 칭찬이 나옵니다.

부부는 모름지기 칭찬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건성으로라도 칭찬은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학(Gamlogy)에서는 칭찬을 제 3의 생명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칭찬의 또 다른 속성은 남을 칭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은 칭찬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서로를 칭찬할 때 부부 사랑의 친밀도는 엄청나게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부부가 칭찬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다가 마침내 손찌검으로 발전해서 드디어 이혼하는 현장은 십수년째 거의 매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부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부들은 사랑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를 칭찬하는 데 인색할까요? 내가 말 안해도 나의 배우자는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당신도 언젠가는 법정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